

# CNPC, 석유·석유화학 구조 개혁

## 석유·가스 파이프라인 분리도 검토 ... 구조개편 통해 부패 척결

<석유방> 사건으로 부패가 드러난 CNPC(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)가 경영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.

CNPC 총재 출신의 장제민(蔣潔敏) 전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의 비리조사에서 입찰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비리가 자행됐으며 회사가 공룡화하면서 석유는 물론 전선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내부 조직관리나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자산관리 등에서 부패의 소지가 많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발전개혁위원회는 석유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CNPC의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, CNPC가 관장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분야를 분리해 다시 별도의 국유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2000년 이후 CNPC가 주도하거나 건설한 대형 파이프라인은 6만km, 석유 및 가스 비축설비는 2000만세제곱미터에 이르며 CNPC는 운송 및 저장설비를 바탕으로 석유 및 가스 가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문어발식으로 뻗어있는 업무분야를 석유 및 가스탐사 및 생산, 정유, 석유화학 등으로 전문화하고 내부자산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은 CNPC의 구조개편을 통해 저우융강(周永康) 전 정법위원회 서기의 세력기반 중 하나인 <석유방>의 기반 축소나 와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9/30>